

신문명	시흥시민신문
등록일	16-11-25 22:55
기사주소	http://ssnews.co.kr/news_view.jsp?ncd=2342
기자명	조민환

한국글로벌중학교 도서관 및 특별실 개관

한글생도서관, "학생들의 사랑의 표현이자 선생님들께 바치는 헌사의 명"



한국글로벌중학교(교장 장성은)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을 지난 11월 25일 개관했다. 한국글로벌중교는 이날 한글생도서관을 비롯해 다목적강당과 준비실, 가사실, 미술실, 도서관, 시청각실, 미디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구비한 에벤에셀 HALL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시흥시교육지원청 장덕진 교육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장, 함진규 국회의원, 손옥순 시의원,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개관 테이프커팅에 이어 1학년 기타부 학생들의 축하공연, 경과보고, 감사기도, 학교장인사말, 축사, 난타공연, 도서관 및 특별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장성은 교장은 '한글생도서관을 세상에 내놓으며'라는 주제의 인사말을 통해 "도서관과 강당을 비롯한 6개의 특별실은 우리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2011년 중학교가 고등학교로부터 분리된 이후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도서관과 강당은 물론이고 미술, 음악, 가사실 등 필수 공간이 없어서 인근 일반교실을 이용해왔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장 교장은 이어 "무엇보다 도서관은 학교의 요람이라 할 만큼 핵심적인 공간이어서 구성원 모두가 얼마나 바래왔는지 모른다"며 "개관식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한국글로벌중학교를 한글중으로 줄여 부르고 선생님을 쌤으로 부른다"며 "한글생도서관은 '한국글로벌중학교선생님들'이란 뜻으로 책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한글중 선생님으로서 자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사랑의 표현이자 선생님들께 바치는 헌사의 명"이라고 도서관명을 설명했다. 한편, 도서관과 특별실이 마련된 '에벤에셀 HALL'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7100만원과 시흥시 지원금

3억9600만 원 등 총 12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4월 25일 착공해 10월 31일 준공한 1140.15㎡의 지상 3층 별관이다.



Copyright © 시흥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